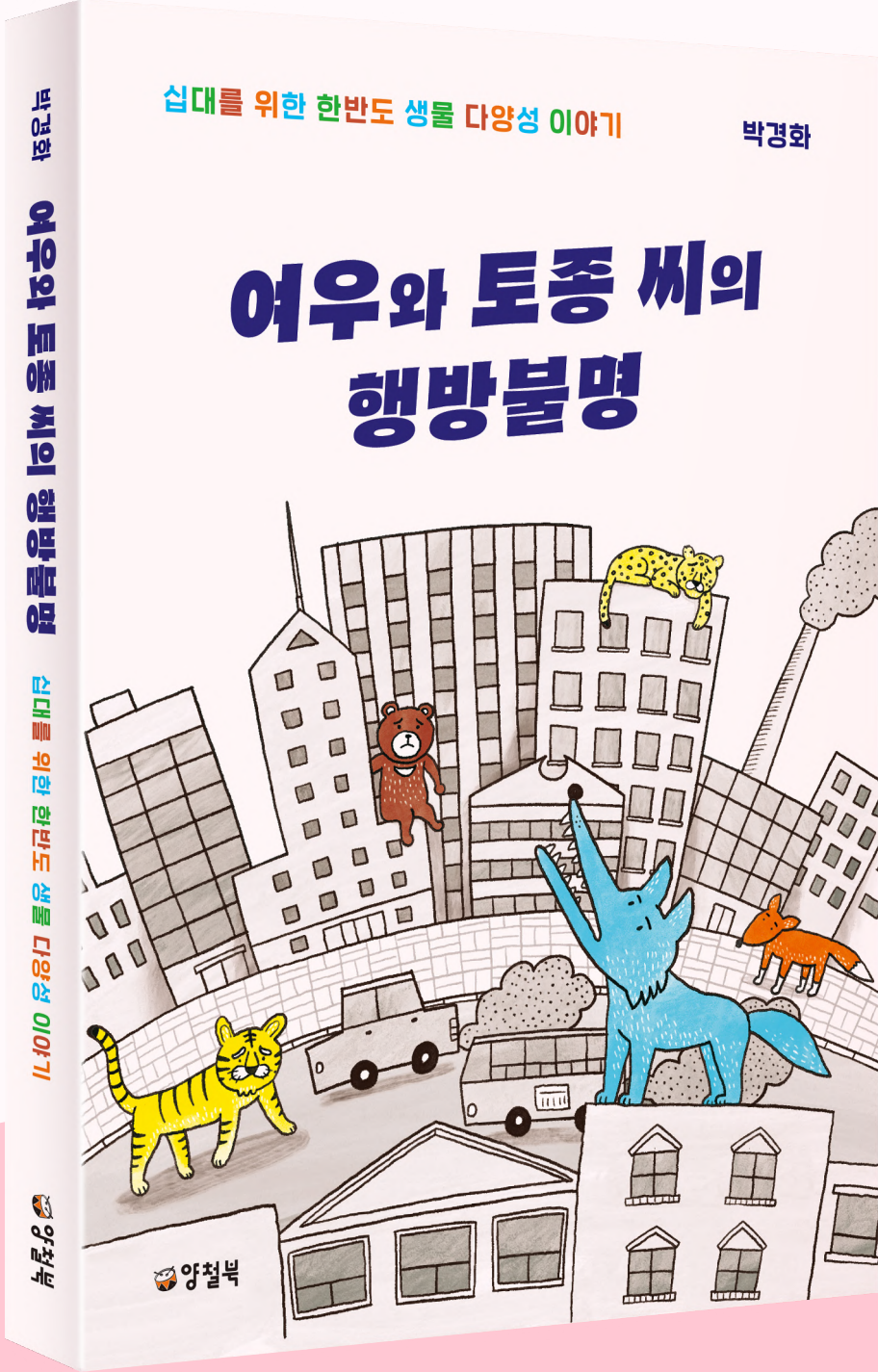


독후 활동지



그 많던 여우와 토종 씨앗은 어디로 갔을까?

우리 곁에서 사라진 혹은 살아남은 생명들 이야기

호랑이, 표범, 늑대……. 우리 숲에 살았던 그 많은 야생동물들은 지금 사라지고 없다. 개발 사업으로 서식지를 위협받고 있고, 기후 변화로 얼음이 녹아 번식지를 잃어 가고 있는 점박이물범은 예전처럼 많이 서해 백령도를 찾지 않는다. 기록에 따르면 한반도에 살았던 포유류는 121종이었는데, 지금 남한에서 찾을 수 있는 포유류는 22종밖에 되지 않는다.

야생식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다. 솜다리 같은 한국 토종 야생화들은 너무 많이 산을 찾는 탐방객들 발에 밟혀 꽃을 피우지 못하고, 채취꾼들 눈에 띄면 박제된 채 기념품으로 팔려 나갔다. 버들버, 쇠머리지장 같은 1500가지 토종 벌씨들은 종자은행에나 가야 볼 수 있다. 기후 변화로 인한 피해, 질병 확산, 개발과 전쟁으로 인한 대규모 생태계 파괴 같은 여러 원인 때문에 이 땅의 식물들도 큰 위기를 맞았다.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훼손되어도 괜찮은 걸까? 이것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까?

《여우와 토종 씨의 행방불명》은 2010년에 처음 출간되어 교과서에 수록되고, 환경과 독서 관련 단체들의 추천을 받았고, 많은 독자들에게 사랑받아 왔다. 독자들의 성원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10여 년의 세월이 가져온 변화를 담아 최신 이슈를 더하고 새로운 발견을 넣어서 다시 펴냈다.

분야

청소년 > 환경 / 생태

키워드

생물 다양성, 멸종 위기종, 멸종 위기 동식물, 야생동물, 환경 이야기, 백두대간, 우리 땅

차례

1부 그 많은 야생동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 천연 가족과 야생동물
- 그 많던 야생동물들이 사라진 까닭
-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태계 이해하기
- ◆ 빙고 게임 (우리나라 야생동물)

2부 우리 숲에서 사라지면 영영 사라지는 것

- 백두대간의 개념과 숲의 의미
- ‘도토리 수호대’와 곰의 착상 방식
- 토종의 개념과 중요성
- ◆ 가로세로 낱말 퍼즐 (산 이름)

3부 자연의 생명들이 우리 곁에서도 행복하길

- 고통받고 있는 우리 곁의 생명들
- 길 위에서 목숨을 잃는 생명들
- ◆ 가로세로 낱말 퍼즐 (새 이름)

4부 우리가 알아야 할 녹색 이야기

- 삼다수와 제주도
 - 쓰레기,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 ◆ 빙고 게임 (우리가 줄여야 할 일회용품)
-

제 1부 | 그 많은 야생동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천연 가죽과 야생동물

-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 가운데 천연 가죽 제품이 있나요? 가죽은 튼튼하고 질겨서 오랫동안 사랑받아 온 재료입니다. 그런데 천연 가죽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생각해 본 적 있나요? 본문의 다음 글을 읽어 봅시다.

야생 여우의 개체 수가 줄어들어 여우 가죽을 얻을 수 없게 되자 사람들은 동남아시아나 중국에 있는 동물 농장에서 여우를 사육하기 시작했다. 모피를 얻기 위해 사육되는 여우의 생활 공간은 0.5제곱미터이다. 이것은 가로세로 높이가 각각 1미터인 상자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좁은 공간으로, 야생 여우의 활동 공간과 비교하면 25만분의 1에 지나지 않는다. 이렇게 사육 공간을 좁게 만드는 까닭은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로 줄여야 부드러운 털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우는 좁고 어두운 우리에 갇혀 평균 7년을 살아야 하고, 전기 충격이나 가스 질식, 목 부러뜨리기 같은 방법으로 도살된다.

밍크와 너구리, 토끼, 친칠라같이 모피 때문에 사육되는 동물들의 사정도 마찬가지이다. 농장 주인에게 동물은 생명이 아니라 최고급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좋은 재료일 뿐이다. 모피 코트 한 벌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우 20마리, 밍크 70마리, 친칠라 200마리가 죽어야 한다.

더 잔인한 방법을 쓰기도 한다. 좋은 모피와 가죽을 얻으려면 동물이 흠바닥에서 뒹굴거나 다른 동물과 싸워 상처를 입지 않아야 한다. 즉 어릴 때일수록 좋다. 그래서 태어난 지 한 달이 안 된 어린 동물의 가죽을 벗기고, 배 속에 있는 새끼에게도 손을 뻗는다. 임신한 어미 양을 새끼를 낳기 직전 막달에 죽여서 배를 가르고 배 안에 있는 새끼 양을 꺼내서 모피를 벗긴다. 태어나기 전에 얻은 이 양털 가죽은 실크처럼 빛나는 광채가 있어 패션 업계에서 아주 고급품으로 거래된다. (54~55쪽)

- 야생동물이 사라지게 된 원인에는 대부분 '밀렵'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밀렵이 성행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책을 읽고 그 이유를 적어 봅시다. (20~22쪽 참조)

천연 가죽과 야생동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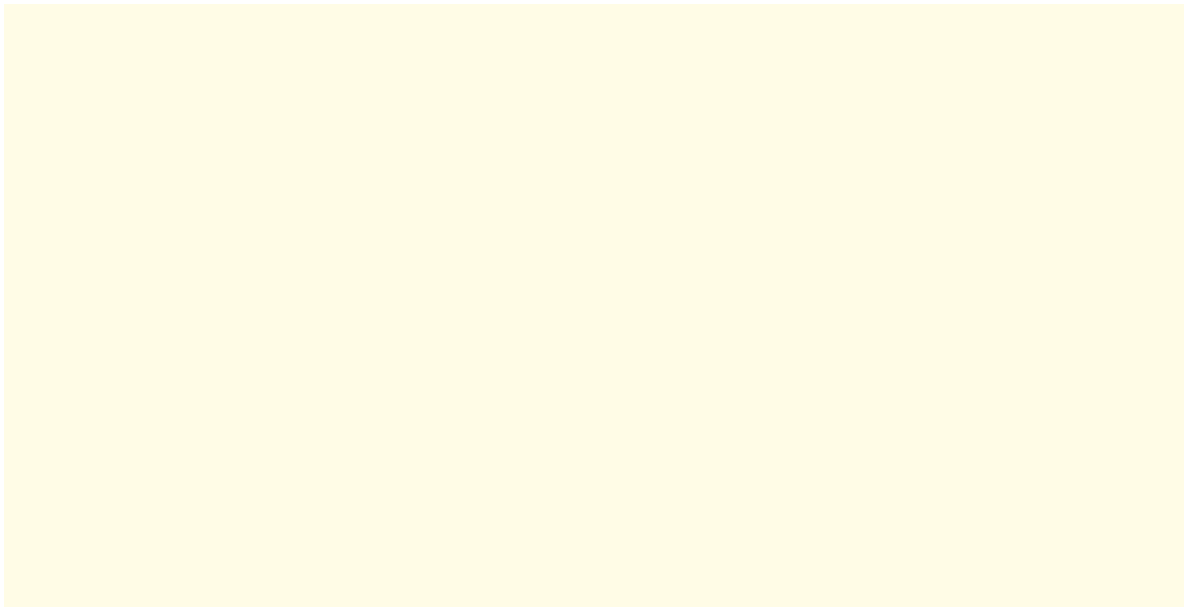
- 구스 패딩 한 벌을 만들 때는 살아 있는 거위 20마리의 털을 뽑아야 한다고 해요. 모피코트 한 벌을 만드는데 여우는 20마리, 밍크는 80~200마리, 토끼는 35마리, 검은담비는 50마리가 필요하다고 하고요. 많은 생명을 죽여서 만든 따뜻한 옷이 우리나라에서 겨울을 나는 데 꼭 필요할까요? 이런 동물 털 대신 쓸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이 있을까요?

- ❖ 참고: [겨울은 거위에겐 '죽음의 계절', 시빅뉴스, 2018.12.23.](#)
- ❖ 참고(영상): [잔인하게 희생되는 동물의 털로 만든 겨울의류, YTN 사이언스, 2016.7.20.](#)
- ❖ 참고: 한지·포도로 만든 '비건 가죽'...진짜 가죽보다 더 진짜 같아, [중앙일보, 2020.10.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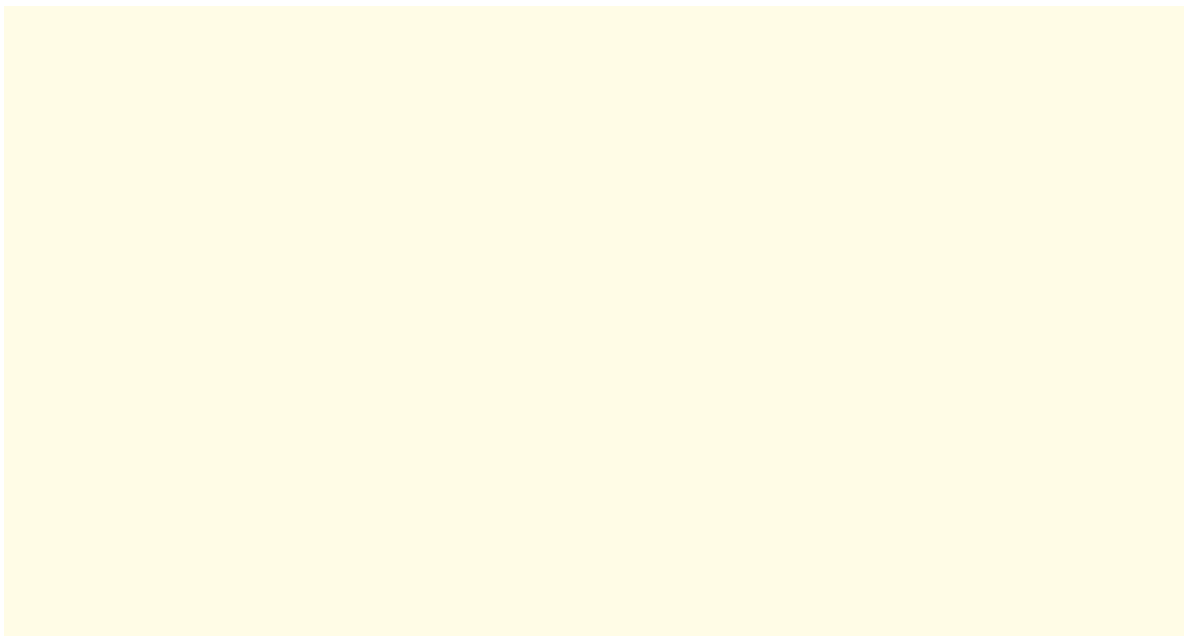


그 많은 야생동물들은 어디로 갔을까?

- 지금 우리나라에 비교적 많이 남아 있는 멧돼지와 너구리, 고라니, 족제비 같은 동물은 별다른 경제성이 없어서 살아남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엔 살았지만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미 사라졌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동물들은 무엇이 있으며, 왜 사라졌는지 이유를 정리해 봅시다. 【예시】 호랑이 - 멸종 이유: 해수구제 사업, 밀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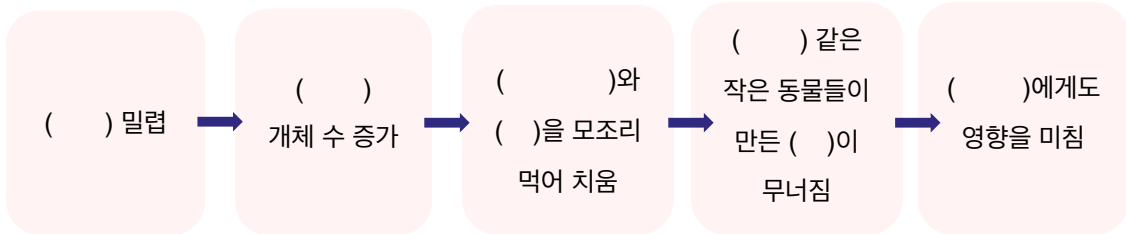


- 왜 우리 숲에 야생동물이 살아 있어야 할까요? 생태계 변화와 관련지어 그 이유를 생각해 봅시다. (23~24쪽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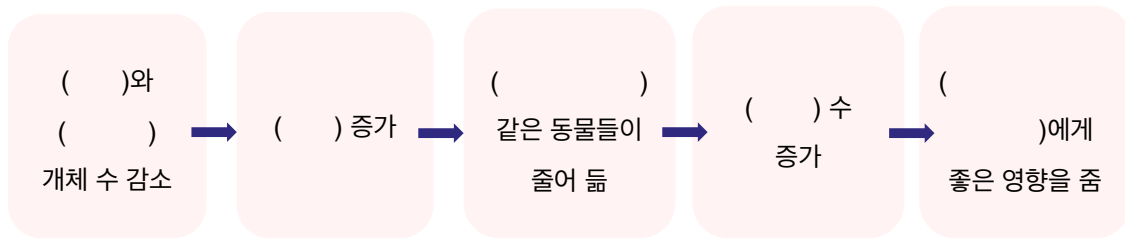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태계 이해하기

- 옐로스톤 지역에서 자꾸 가축을 잡아먹는 늑대를 없애 버린 이후에 벌어진 일들을 정리해 본 것입니다. 괄호 안에 적절한 말을 채워 봅시다.



- 늑대를 다시 들여오고 나서 생태계가 회복되는 과정을 정리해 봅시다.



- 우리 숲에서 호랑이가 사라지고 나서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 저마다 이 세상에 태어난 까닭이 있듯, 동물 역시 생태계에서 제 몫의 위치와 역할이 있습니다. 그 질서가 흐트러지면 자연 생태계에는 예기치 못한 문제가 일어납니다. 야생동물과 거리를 두어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빙고 게임 - 한국의 야생동물

- 우리 숲에는 다양한 야생동물이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랑이와 표범, 스라소니, 늑대 같은 동물은 사람들이 함부로 밀렵하는 바람에 멸종되었지요. 멸종 위기에 놓인 야생동물도 많습니다. 이제는 동물원에서나 만날 수 있는 야생동물 이름을 떠올려 보고, 빈칸에 원하는 야생동물 이름을 적으세요.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4줄을 먼저 연결한 사람이 이깁니다.

★ 다음 예시를 참조하세요. 이밖에 다른 동물 이름을 써도 좋습니다 ★

반달가슴곰, 수달, 고라니, 노루, 사향노루, 여우, 늑대, 호랑이, 표범, 멧돼지, 산양, 너구리, 스라소니, 고슴도치, 두더지, 쥐, 박쥐, 청설모, 다람쥐, 하늘다람쥐, 멧토끼, 삿, 족제비, 쇠족제비, 오소리, 담비, 꽃사슴, 꿩, 참새, 까치, 까마귀, 멧비둘기, 직박구리, 독수리, 황조롱이, 소쩍새, 검은등뻐꾸기, 휘파람새, 박새, 오색딱따구리, 곤줄박이, 꿩꼬리, 기러기, 개구리, 두꺼비, 장지뱀, 살모사, 까치살모사, 유혈목이, 물범

제 2부 | 우리 숲에서 사라지면 영영 사라지는 것

백두대간의 개념과 숲의 의미

- 백두대간의 개념을 산맥 개념과 비교하여 정리해 봅시다.

백두대간:

산맥:

- 여러분은 숲 하면 무슨 생각이 떠오르나요? 요즘 사람들이 숲에 대해 생각하는 바를 참고 하여(본문 76쪽) 여러분은 숲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적어 보세요.

‘도토리 저금통’과 곰의 착상 방식

- 다람쥐나 청솔모 같은 작은 동물에게는 물론, 곰에게도 나무 열매는 중요한 먹거리입니다. 다음 기사를 읽어 봅시다.

<도토리 수호대의 도토리 저금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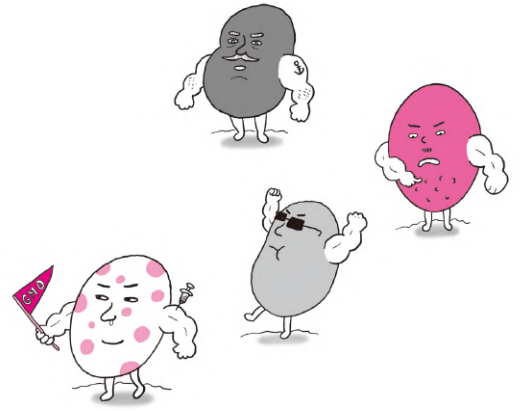
‘외부인들의 도토리 줍기를 막지 못한다면, 차라리 학생들이 먼저 도토리를 줍는 게 어떨까?’ 주변 주민들의 도토리 무단 채취를 고민하던 학생들이 모인 ‘연세 도토리 수호대’는 지난해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학내 도토리를 주워 보관한 뒤, 먹이가 부족한 겨울철 숲속에 나눠주는 일이 주된 활동이다. 대원 30여 명이 활동하고 있는 수호대는 이날 다람쥐·청솔모 등이 쉽게 자주 접근할 수 있는 도토리 저금통도 설치했다. 다람쥐 몸집이 지나다닐만한 동그란 구멍이 나 있는 저금통에 학생들이 도토리를 주워 넣어두면, 먹을 것을 찾던 야생동물이 꺼내먹을 수 있는 구조다. 지난해 사회관계망 서비스(sns)를 통해 처음 도토리 수호대 활동을 제안한 사씨는 “보이는 도토리 중에서 절반 정도는 수거해 겨울에 뿌리고, 나머지는 저금통에 넣어 두는게 목표”라며 “도토리 확보가 여의치 않을 땐 대체 식량인 견과류를 기부받는 활동도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도토리 줍지 마세요, 다람쥐에 양보하세요~”, 한겨레신문, 2018.9.13.](#)

- 특히 곰은 독특한 착상 방식 때문에 도토리가 더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곰의 착상 방식을 적어 보고, 나무 열매의 중요성을 생각해 봅시다. (100~101쪽 참조.)

토종의 개념과 중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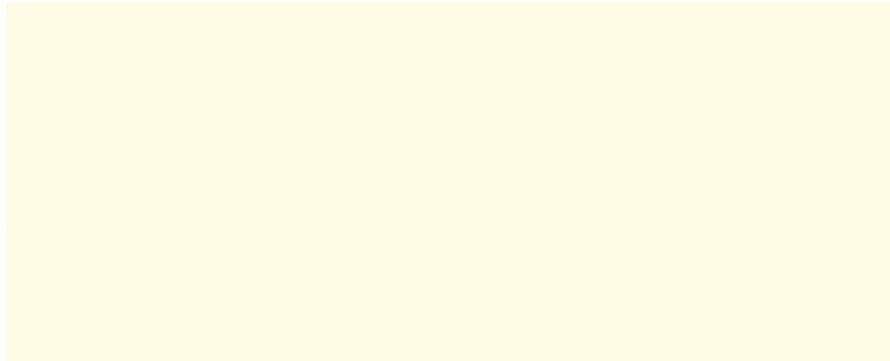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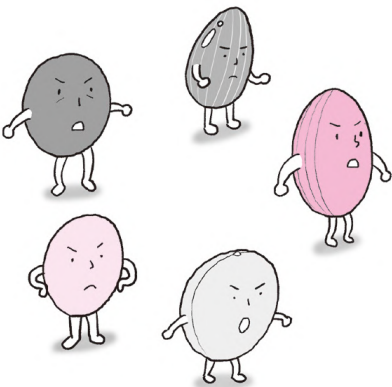
- 토종의 의미를 적어 봅시다. (118쪽 참조.)



- 농부들이 해마다 씨앗을 사야 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다국적 기업들이 개량종 씨앗을 만들 때 사용하는 기술과 연관지어 적어 봅시다. (119~120쪽 참조.)

- 식량 주권의 의미를 찾아보고, 도시에서도 토종 씨앗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까닭을 생각해 봅시다.

여긴 우리 땅이야!



가로세로 낱말 퍼즐 - 산 이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가로 풀이

- 한라산 꼭대기에 있는 호수.
- 인도와 중국 티베트 사이에 있는 산맥. 세계 최고의 에베레스트산을 비롯하여 7200미터가 넘는 산이 50개가 넘고, 만년설이 쌓여 있어요.
- 심마니, 심봤다.
- 비상 상황에 대피하도록 세운 건물. 높은 산에 가면 있어요.
- 각의 크기. 사물을 보거나 생각하는 방향.
- 적이 쳐들어온다는 것을 빨리 알리는 횃불.
- 함경도와 만주 사이에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산. 천지연이 있고 압록강과 두만강, 송화강이 시작되는 산. '동해물과 ○○○이 마르고 닳도록~'.
- 땅속의 마그마가 밖으로 터져 나와 퇴적하여 이루어진 산.
- 높은 산에서 자라는 연한 노란빛 꽃으로, 줄기와 앞에 흰 솜털이 뒤덮여 있어요. 에델바이스와 닮았어요.
- 온전하게 잘 지키거나 지님. 보호, 보존과 잘 구별해서 써야 해요.
- 어떤 인물이나 사적을 기념하기 위하여 돌에 글자를 새겨요. 묘소 앞에 많이 있어요.
-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진 산골.
- 매화나무 열매.
- 지리산 봉우리 중 하나. 전남 구례군 마산면과 전북 남원군 산동면 사이에 있고, 노고 할미의 전설이 있어요.
- 불국사와 석굴암이 있는 경주의 산. ○○산.
- 땅의 형세나 방위를 인간의 길흉화복으로 풀어내는 학설로, 이사나 묘지를 정할 때 쓰곤 해요.

가로세로 낱말 퍼즐 - 산 이름

세로 풀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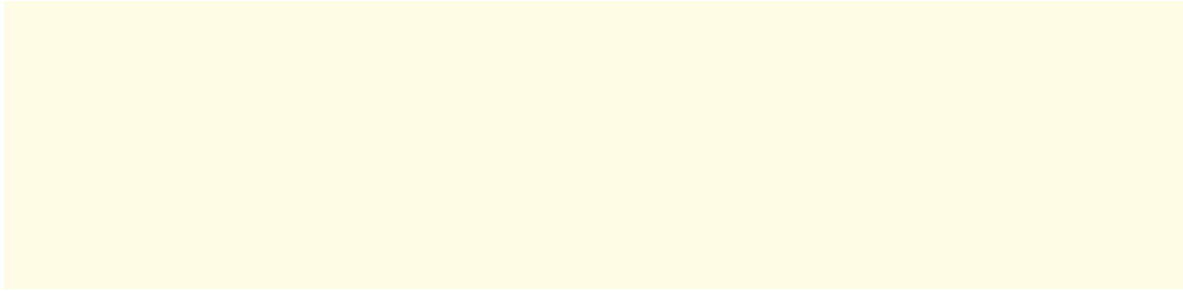
1. 백두산에서 지리산까지 하나의 물줄기로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 지형의 뼈대를 이루는 산줄기.
3. 무엇을 받치거나 꺾말로 하기 위해 박아 세우는 기둥 모양의 것. 어릴 적 놀부는 호박에다 이것을 박으며 심술을 부렸대요.
4. 산에 들에서 피고 지는 꽃. 금강초롱, 매발톱꽃, 처녀치마, 구절초, 노루귀, 꿩의 비름...
6. 북한산에 있는 인수봉, 백운대, 국망봉 세 봉우리를 이렇게 불러요. 조선시대 김상헌 선생은 이런 시조를 남겼어요. '가노라 ○○○아 다시 보자 한강수야~'.
8. 경북 영주와 충북 단양 사이에 있는 국립공원. 제일 높은 봉우리는 비로봉으로, 봄에 철쭉제가 유명해요.

10. 산에서 가장 높이 솟은 부분.
12. 산이나 들에 불을 지른 다음 땅을 일구어 농사를 짓는 밭.
14. 짙은 붉은 빛, 진홍색. '이왕이면 ○○치마'라고 하지요.
15. 그해에 태어난 새끼를 길들여서 사냥에 쓰는 매.
17. 신라 지증왕 때에 축조한 얼음을 저장하던 곳. 보물 66호로 경주에 있어요.
19. 산이나 골짜기에 소리가 부딪혀 되울려 오는 현상. 산울림.
21. 사실대로 내용을 모두 밝혀 말하다.
23. 가을이면 나무마다 산마다 울긋불긋 고운 옷을 갈아입어요. 설악산, 내장산의 이것이 유명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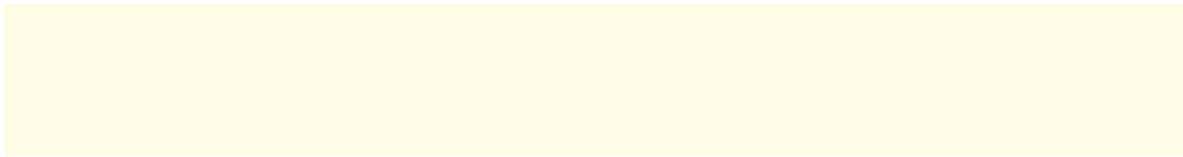
제 3부 | 자연의 생명들이 우리 곁에서도 행복하길

고통받고 있는 우리 곁의 생명들

- 매년 800만 마리의 새들이 건물 유리창과 투명방음벽에 충돌하여 폐사하고 있습니다. 하루 평균 2만 마리가 죽고 있는 셈이죠.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134쪽 참조.)



- 새들이 유리창에 부딪혀 죽는 사고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길 위에서 목숨을 잃는 생명들

- 길 위에서 차에 치여 죽는 야생동물 충돌 사고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로드킬의 원인과 대안을 찾아서 아래 빈칸에 써 보세요. (175~180쪽 참조.)

우거진 산림을 따라 난 굽잇길. 국립공원공단 직원들이 분주히 움직입니다. 길을 건너다 차에 치여 죽은 뱀을 치우고 있는 겁니다. 유혈목이라는 이름의 뱀이 찾길 사고를 당한 장소입니다. 지금 도로 위에도 사고의 흔적이 여전히 보이는데요. 이 공원에서도 매년 '로드킬' 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로드킬'을 당하는 동물도 다양합니다. 고라니와 너구리, 다람쥐 같은 포유류부터 두꺼비와 뱀 등 양서·파충류까지 있습니다.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삶이나 천연기념물 황조롱이도 예외는 아닙니다.

[김지영/국립공원공단 생태조사부 연구원 : “국립공원 내 도로들은 산에 뚫린 도로이기 때문에 다 산림 안에 있거든요. 그 중에서 계곡이라든가 물을 좀 끼고 있으면 양서·파충류에 대한 로드킬이 많이 발생하거나...”]

최근 5년 동안 국립공원 안에서 일어난 '로드킬'은 1,280여 건. 한 해 평균 250건이 넘습니다. 지리산이 350여 건으로 가장 많았고, 소백산과 오대산, 내장산도 100건을 넘었습니다.

'로드킬'을 막기 위해선 동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생태통로' 확보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전국 국립공원 21곳 가운데 '생태 통로'가 설치된 곳은 8곳에 불과합니다.

[노웅래/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 : “생태통로가 설치되지 않은 국립공원이 절반 이상에 달합니다. 동물과 운전자의 안전을 위해 생태통로 설치를 확대해야 합니다.”]

출처: [국립공원 내 '로드킬' 매년 250건...생태통로는 '태부족', KBS뉴스, 2021.10.22.](#)

가로세로 낱말 퍼즐 - 새 이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가로 풀이

- 몸이 온통 검은 새. 이 새를 보면 재수가 없다고도 해요. '○○○ 노는 골에 백로야 가지 마라~'.
- '딱딱딱' 나무를 쪼아 구멍을 만들어요.
- 약으로 쓰기 위해 음력 오월에 쑥을 베어 말려 두어요.
- '뜸북 뜸북 뜸북새 논에서 울고~'.
- 행운을 주는 새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 성격은 고약해요. 동화 '치르치르와 미치르'에서 이 새를 찾아 여행을 떠나지요.
- 동물에게 먹이는 풀이나 곡식 등을 이렇게 부르지요.
- 고니. '○○의 호수'로 유명하지요.
- 겨울에 찾아오는 철새. 해안의 언덕이나 절벽 위를 좋아하고, 독극물로 죽은 동물을 먹고 2차 중독되는 경우가 많은 새예요. '○○○ 오형제'라는 만화도 있어요.
- 농사지를 물을 얻기 위해 독을 쌓은 곳으로, 이 주변에 갈대밭이 만들어져 새들의 보금자리가 되기도 하지요.
- 김광섭 시인의 시에 나오는 새. '성북동 산에 번지가 새로 생기면서 본래 살던 성북동 ○○○만이 번지가 없어졌다~'.
- 단단하고 부스러지기 쉬운 물건을 조금 세게 깨물 때 나는 소리.
-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 바닷가에 사는 푸른 회색 바닷새로 백구라고도 하지요.

가로세로 낱말 퍼즐 - 새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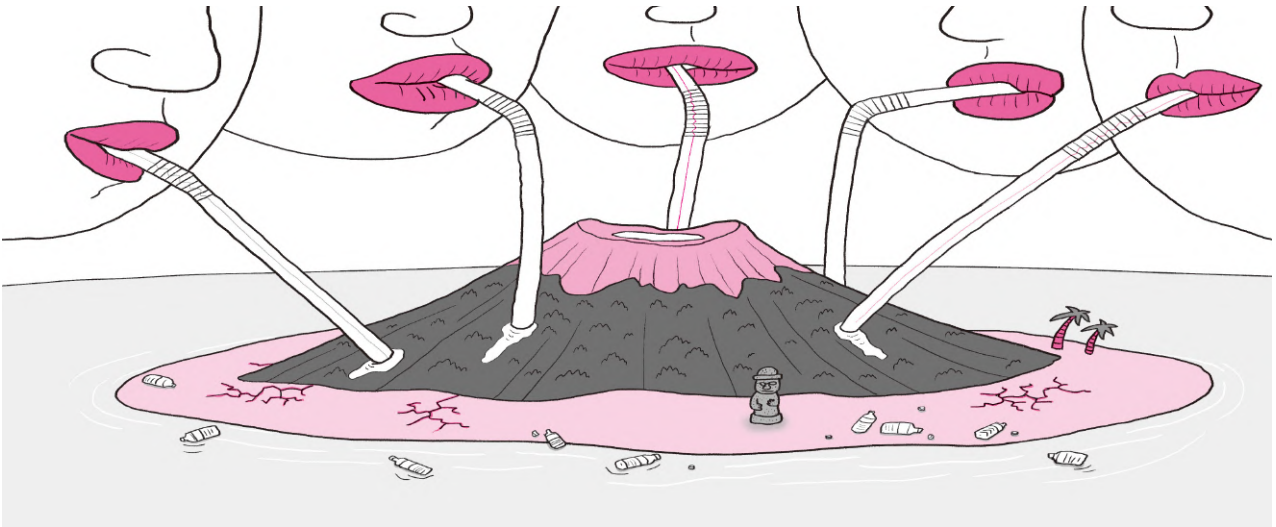
세로 풀이

1. 암퇘. '○○○ 한 마리 푸드득 하니 매방울이 떨어져~'.
3. '보일 듯이 보일 듯이 보이지 않는 따옥따옥 따옥소리~'.
5. 아플 때 뜨는 건강을 위해 몸의 혈 자리에 쑥으로 뚫을 쓰지요.
6. 주걱 모양으로 생긴 노랑 부리를 가진 이 새는 부리로 물속을 저어 물고기를 잡아먹어요.
8. 올빼미과의 새로 머리 꼭대기에 귀 모양의 깃털이 있어요.

9. 사람이나 동물의 울음소리를 잘 흉내 내는 새.
11. 고추장, 간장, 된장이 익어가는 장독이 모여 있는 곳.
15.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준 새. 사람의 집 처마 밑에 둥지를 틀어요.
17. 지빠귓과에 속한 새를 통틀어 이렇게 불러요.
검은○○○, 개똥○○○, 노랑○○○,
붉은배○○○, 호랑○○○, 흰배○○○.
19. '달 맑은 가을밤에 ○○○들이 찬 서리 맞으면서 어디로들 가나요~'.

제 4부 | 우리가 알아야 할 녹색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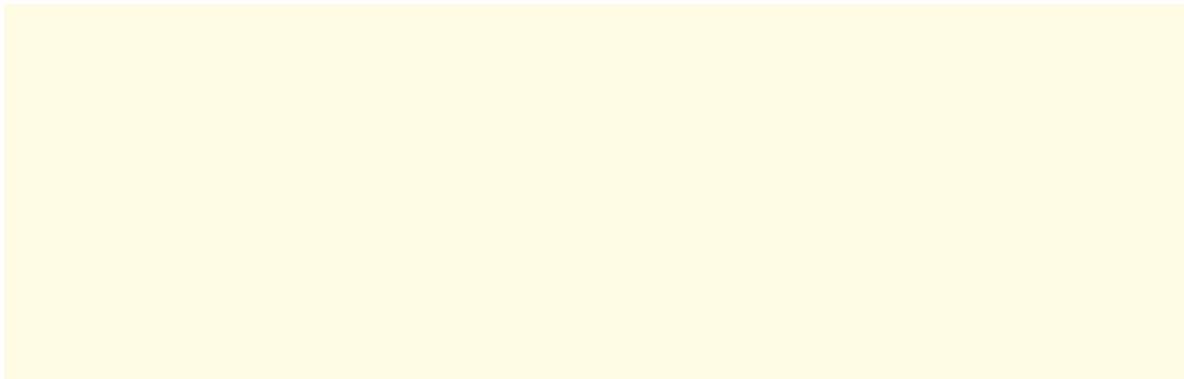
삼다수와 제주도



지금 제주도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생수를 생산하고 있다. 생수를 찾는 사람이 늘고 생수 시장이 커지면서 곳자왈이 만들어 내는 물에 대한 수요가 훨씬 커졌다.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물맛 좋기로 유명한 곳에는 어김없이 생수 공장들이 들어서 있고, 맑고 깨끗한 물을 퍼 올리고 있다.

…… 우리나라에서 처음 생수를 판매한 것은 1988년 서울올림픽 때였다. 외국 선수들이 우리나라의 물을 꺼릴 수 있다고 하여 생수 판매를 잠깐 허용했다. 그러나 올림픽이 끝난 뒤 법률이 폐지되었다가 1995년 ‘먹는물관리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생수가 등장했다. 2014년 우리나라 생수 시장 규모는 6040억 원이었는데, 2018년 1조 1500억 원까지 급성장했고, 2023년에는 2조 원이 넘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88~191쪽)

- 이렇게 점점 생수를 사 마시는 비율이 늘어나면서 국내 생수 시장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는 무엇이 있을까요?



삼다수와 제주도

- 수년간 제주도에 제2공항을 지어야 하는지를 두고 첨예하게 논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제주도에 새로운 공항을 지어야 한다고 생각하나요? 찬반 양쪽의 의견을 정리해 보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 생각해 봅시다.

찬성하는 쪽의 이유:

반대하는 쪽의 이유:

자신의 생각:

❖ 참고: [환경부 제주 제2공항 '반려' 찬반 갈등 재확산...사업 중단? 재협약?, 세계일보, 2021.7.20.](#)

❖ 참고: [제주 제2공항과 '적정 관광'\(이종규 칼럼\), 한겨레신문, 2021.8.1.](#)

- 제주도를 안전하고 깨끗하게 지키며 여행하는 법은 무엇일까요? 각자 아이디어를 더 내봅시다. (217~218쪽 참조)

쓰레기, 이제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 1978년부터 수도권 쓰레기 매립지로 지정된 난지도 매립지가 15년 만에 가득 차서 쓰레기를 버릴 수 없게 되자, 1993년 경기도 검단면 김포구(현재 인천시 서구)로 매립지를 옮겼습니다. 그런데 조만간 인천시 서구 매립지도 포화 상태가 될 거라고 해요. 그리고 얼마 전 이런 발표까지 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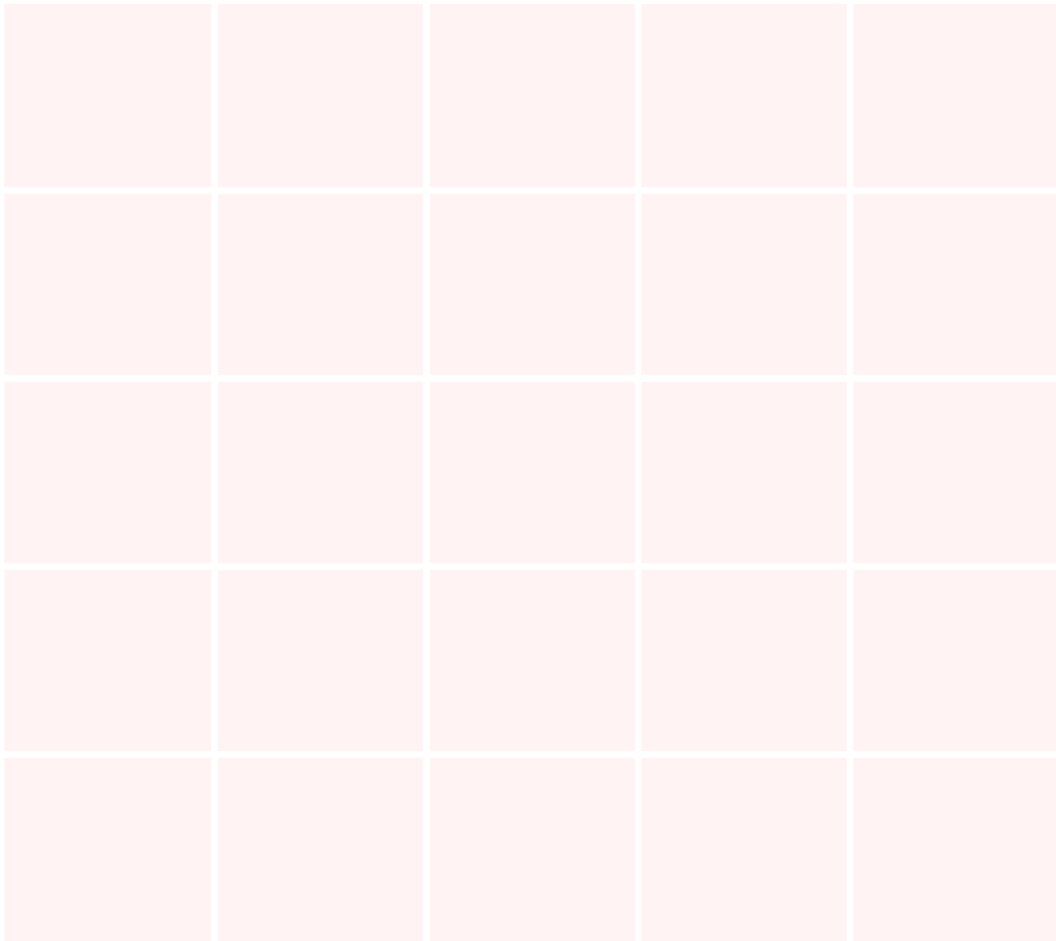
서울과 경기, 인천 등 수도권 2500만 명의 쓰레기를 매일 처리하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11월부터 소각장 신설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반대하는 주민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폐기물 반입을 금지하겠다고 선언했다. 서울시와 인천시는 “취지는 공감하지만 사전 논의가 안 된 일방적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출처: 수도권매립지 “소각장 반대 지자체 폐기물 안 받겠다”...서울시·인천시 ‘반발’,
경향신문, 2021.10.26.

- 이제 새로운 매립지를 찾지 않으면 안 되는 시점까지 온 것이지요. 하지만 자신이 사는 동네에 매립지를 만든다고 하면 시민들은 크게 반발합니다. 님비(NIMBY) 현상에 대해 적어 보고, 어떤 식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봅시다.

빙고 게임 - 우리가 줄여야 할 일회용품

- 본래 자연 생태계에는 쓰레기가 없었습니다. 생명을 다한 풀과 나무, 동물은 그 자리에 쓰러져 기꺼이 다른 생명체의 양분이 되고, 다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오직 인간만이 잘 썩지 않는 쓰레기를 남기고, 그 쓰레기는 사람 수명보다 훨씬 더 긴 시간 동안 지구 생태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내가 가진 모든 것은 언젠가 쓰레기가 될 것입니다. 더 많은 쓰레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우리가 줄여야 할 일회용품을 빈칸에 채우고 빙고 게임을 해 봅시다. 가로, 세로, 대각선까지 4줄을 먼저 연결한 사람이 이깁니다.



★ 다음 예시를 참조하세요. 이밖에 다른 것을 써도 좋습니다. ★

종이컵, 빨대, 쇼핑백, 비닐 봉투, 스티로폼 그릇, 우산 비닐, 생수병, 종이봉투, 물티슈, 일회용 칫솔, 비닐장갑, 일회용 도시락, 일회용 손가락, 나무젓가락, 일회용 포크, 플라스틱 컵, 일회용 우비, 랩, 호일, 은박접시, 스티로폼 포장지, 종이상자, 과대 포장지, 종이 그릇, 플라스틱 반찬 그릇